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배*봉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San Marcos 샌마르코
파견대학	California State Univ. San Marcos	파견기간	2014년 8월~2015년 5월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Marcos는 캘리포니아 주 산마르코 도시에 위치한 주립대학교입니다. 샌디에이고와 차로 2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멕시코와 국경을 거의 맞닿는 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 규모는 미국 대학교치고 길을 잃을 염려가 없는 작은 학교지만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학교에 속합니다. 제가 파견되었을 때도 지난 기수 언니 오빠들이 이용하지 못한 카페테리아가 새로 생긴 상태였는데 제가 떠날 때는 Sports center와 기숙사 시설 신축과 기타 마트가 들어올 계획에 있었습니다.
2014-2학기 수업	<p>CHEM101: PREPARATORY CHEMISTRY : 일반화학을 수강하기 전에 기초 다지기로 개설된 수업. 개인적으로는 일반화학을 한국에서 들은 상태여서 듣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본교 일반화학 수업은 강의에다 실험까지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이 수업은 일주일에 2번 한 시간 15분 수업이었기 때문에 간단하였고 매 수업 시작 시 퀴즈를 보고 이론을 나간 후 수업 마치기 전 주변에 앉은 친구들과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숙제는 캠벨교과서 일반화학 연습문제 풀어서 매번 시험 때 제출하는 거였습니다. 가을학기 수업 신청은 교환학생이 우선순위가 뒤고 저 같은 경우 제가 원하는 전공을 들을 수 없어서 이 수업을 수강하였는데 일반화학을 듣고 싶은 학생이 있으시면 일반화학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수업은 일반화학 선행으로 나온 수업인데 굳이 이 수업 들으실 필요 없을 것 같네요!</p> <p>DNCE200: MOVEMENT AWARENESS : 부담 없이 수강했던 수업. 성적은 출석/수업참여도, Journal, group facilitation, critique, research paper 등으로 평가됩니다. 여러 실험적인</p>

방법을 통해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해부학적 구조를 이론이 아니라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 몸소 체험하게 하는 수업입니다. 강의는 이론이 아니라 교수님이 activity형식으로 진행하여서 그룹끼리 또는 짝을 지어 몸으로 실제 해보는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nya Cloud 교수님 수업 적극 추천합니다! 학생들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하시고 또 학생들끼리 하는 활동이 많은 수업이라 친구들 사귀기에도 좋습니다. 댄스수업 같은 경우는 공연을 보러 의무적으로 한번 이상 보고 와야 하는데 저는 공연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친구들도 쉽게 사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Movement Awareness 수업의 경우에는 주제 자체가 생소하고 수업방식이 처음에 제 생각 이외의 것 이여서 조금 당황한 점이 있습니다. 살짝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춤을 배우고 싶으신다면 비추! (그런 수업이 아니에요 이걸!) 춤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힙합이나 그 이외에 다른 수업이 많습니다! 댄스관련 춤 듣고 싶으면 연락 주시면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GEW101: PRIN OF WRITTEN COMM

: GEW는 본교 학생들, 주로 freshman들이 학초 과목으로 의무적으로 듣는 수업이에요. 저는 그걸 모르고 수강신청 했다가 매우 고생했다는! 매주 에세이 due가 있고 책을 읽고 써야 하는 에세이도 많았기 때문에 고생했던 수업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첫 학기에 라이팅수업을 들어서 인지 고생은 했지만 보고서 형식(MLA/ APA format)에 대해서 미리 배워서 다른 수업 보고서 쓸 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도움은 많이 받았지만 그만큼 노력과 시간이 투자되는 수업이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HSCI200: PERSONAL HEALTH & WELNESS

: 이 수업은 작년 교환학생 갔다 오신 선배들이 듣고 후기가 좋았고 또 당시 수강신청 할 만한 것이 없어서 들은 과목이에요. 공중보건 수업으로 건강에 관해서 배웁니다. 수업은 쉽게 진행되는데 기타 숙제가 정말 많아서 어렵지는 않았지만 시간을 좀 많이 투자했던 것 같네요. 온라인퀴즈 및 교과서 읽고 답해서 써야 하는 보고서 등등이 한 주에 여러 개 있어요. 미리 해두면 많지는 않지만 참고하시길!

MUSC394: VOCAL ENSEMBLE

: 우리학교 교환학생 오시면 다들 듣고 가는 수업. 수업이라 무색하게 일주일에 한번 3시간 정도 수업하는데 수업시간 동안 학기 마지막 콘서트에 부를 합창곡을 배우고 연습하고 합니다. 교실은 hall 같은 데서 이루어 지는데 저는 색다른 경험이라 좋았어요. 단지 학기 동안 4~5곡을

	<p>사실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니까 노래 부르는 것에 흥미가 없으면 지루할 수도 있지만 친구 사귀기에도 좋고 학기말 콘서트에서 느끼는 경험은 평소에 느껴보지 못할 거기 때문에 추천!</p>
2015-1학기 수업	<p>BIO210: INTRO CELL/MOLEC BIOL 실험과 강의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개 합산한 점수가 반영됩니다. 강의는 교수님마다 다릅니다.</p> <p>DNCE101: INTRO TO DNCE 강의 식 수업으로 일주일에 하루는 춤 여러 장르에 대한 역사 등을 배우고 나머지 하루는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 등을 읽고 학생들이 직접 자기가 읽은 내용을 나머지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는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실제 춤도 배워보기도 하고요. 점수는 해오라는 것 해가면 좋게 주시지만 저는 강의 배울 때 흥미롭긴 했지만 사실 좀 지루했어요. 기말은 그룹 애들끼리 춤 창작해서 보여 주는 거였는데 저는 그건 좋았지만 강의시간이 좀 지루했습니다.</p> <p>DNCE130-3: CONTEMPORARY BALLET 1학점짜리 수업으로 그냥 부담 없이 들은 과목. 발레를 언제 배워보겠어 하는 생각으로 부담 없이 들은 과목이라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주일에 2번 한 시간씩 하는 수업이라 사실 발레를 제대로 배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barre조차 없어서 사실 의자 놓고 배웠는데 좀 실망이었어요. 비추!</p> <p>TA402: ACTING STUDIO 저는 룸메가 추천해줘서 같이 들었어요. 강의실이 black box처럼 된 곳이었는데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거의 activity였어요. 학기 동안 2~3개 monologue랑 scene 외우고 연습해서 학기말에 showcase갖고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독백대사 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acting 활동들을 해요. 제가 들은 Marcos 교수님은 Suzuki training 을 전공하신 분이어서 Suzuki 훈련을 수업 중에 많이 했습니다. 또 학기 중에 책 3권정도 읽고 질문거리 생각해 오고 학기말에 paper제출하는 것도 있었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단 책이 약간 지루하고 acting관련 용어도 많아서 저는 좀 집중하느라 힘들었습니다.....이 수업보다는 다음학기에 좀더 재밌는 수업이 많이 열린다고 들었는데 다른 수업 추천합니다! 대사를 외우고 파트너랑 하고 하는 일이 많아서 재밌고 영어향상에도 도움이 되었어요!</p>

	<p>VPA380-25: DNCE ENSEMBLE</p> <p>저는 정말 추천합니다 이 수업!!! 학기말에 콘서트를 하는데 저는 댄스 전공도 아니고 걱정 많이 했는데 교수님이 각자 학생들에 맞는 안무를 만들어 주시고 학생들이 직접 안무를 만들도록 이끌어 주세요. 같이 추고 접촉이 많다 보니까 친구들이랑도 정말 금방 친해져요! 출석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 댄스공연보고 와서 critique쓰는 것과 journal 그리고 마지막에 paper쓰는 것이 있어요. Anya Cloud 교수님 수업이었고 궁금한 게 있으면 답변도 정말 빠르게 해주시고 해서 저는 어려움 없이 좋은 점수 받았어요. 댄스 관심 있으시다면 이 교수님 수업 추천합니다.</p>
프로그램 운영	<p>순천향대도 있었던 coffee hour가 한 학기에 적어도 2번은 있어서 저는 바빠도 꼭 가서 새로운 친구들 사귀고 했습니다. paper쓸 때 어려움이 있으면 writing center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STEM center라고 이공계 계열 전공 수업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가면 tutor가 있어서 공부하다 질문하고 싶었던 거 질문할 수도 있어요. 학기초기에 international 학생하고 현지학생하고 1:1로 맺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여했었는데 사실 연락처를 알려주고 담당부서 해서는 따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저는 사실 도움을 못 봤어요. 저는 맺어준 친구가 졸업을 앞둔 친구라서 학교에도 별로 안 나오고 해서~ 그렇지만 좋은 친구 만난 좋은 케이스도 있으니까 이메일로 오는 학교 이벤트 정보 잘 받아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또 Writing center 말고 따로 international 학생들을 위한 따로 글쓰기 봐주시는 tutor분이 계신데 그 tutor를 찾아가면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날씨는 연중 온화합니다. 저는 사실 캘리포니아 더울 줄 알고 나시랑 반팔이랑 반바지랑 많이 챙겨갔었는데 생각만큼 많이 입고 오지는 않았어요.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반팔에 얇은 남방을 걸치고 긴 청바지 입고 다녔습니다. 뜨겁긴 하지만 습하지 않아서 땀이 안나요 막 뛰어다니고 운동하진 않으면요. 즉 건조한 편입니다. 제가 있는 동안 비가 한 3~4번 왔는데 퍼붓는 비는 아니어서 애들도 우산을 거의 안 쓰고 그냥 막고 다녀요. 그래도 일교차가 있어서 밤에는 쌀랑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개인에 따라서는요. 겨울방학 때 미국 동부나 중부 등으로 여행하실 생각이시거나 겨울 옷 한 두개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p>

안전	<p>캠퍼스 근처는 안전합니다. 경찰소가 학교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순찰도 하고 제가 학교에 있는 동안 rape가 있었다고 2~3번 기숙사 gate앞에 조심하라고 공지가 붙고는 했었는데 학교 학생이 아니라 외부인에 의한 거였어요. 파티를 가고 할 때 친구들이랑 같이 가고 또 술 마실 때 주량만 마시고 하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해도 저는 밤에 마트 혼자 걸어가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여자라서 저는 항상 친구랑 같이 가고 했어요.</p>
숙소	<p>저는 UVA에서 2학기 거주하였습니다. UVA랑 Quad 두 종류인데 저는 UVA가 싸서 (한달에 750불) 선택했습니다. Quad 살아본 친구는 uva가 별로 안 좋다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UVA도 빌딩마다 어디는 좀더 오래된 건물 티가 나고 그런데 저는 B building이었는데 살면서 별레도 본 적 없고 좋았어요. 주방하고 거실이 있으며 거실에 텔레비전이 없는게 QUAD랑 차이점! 저는 쉐어룸에 살았는데 불편했던 것은 책상이 2층 침대 바로 밑에 있어서 램프 없으면 정말 어두웠어요. 홈스테이 사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확실히 기숙사보다는 싸지만 저는 기숙사에서 하는 이벤트도 많고 또 외국인과 룸메하면서 느끼는 문화 같은 것(좋은 불편하든)도 있으니 기숙사에서 사는 거 추천해드리고 싶네요!</p>
식사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V) 홈스테이 () 외부식당 (V) 직접 요리 (V)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학교식당에는 3~4개 음식점하고 편의점, 카페 등이 들어와 있는데 매번 사먹기에는 가격도 비싸고 또 매번 먹기에는 한국인들은 금방 밀가루 음식이 질려서 보통 주로 요리해서 먹었어요. Ralphs라는 마트가 학교에서 걸어서 10분정도 거리에 있어서 저는 재료사다 요리해 먹었어요. 한인마트는 차로 이동해야하는 거리라서 차 있는 친구가 있거나 운전 가능하시다면 좋아요. 외부식당도 차로 가야하는 거리라서 그런면에서는 많이 불편했어요.</p>
교통	<p>Sprinter라는 지상철을 탈 수 있는 역이 학교에서 걸어서 10분거리에 있어서 그 역에서 Oceanside까지가면 샌디에고랑 엘에이로 Coaster나 Amtrak타고 갈 수 있어요. 확실히 차로 가는 것보다는 시간이 2배로 걸리지만 그래도 차 없을 때는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살았어요. 또 Sprinter타고 Oceanside 비치도 갈 수 있고요. 확실히 차보다는 갈아타고 하는 시간등을 포함해서 많이 걸려요.</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왕복항공비 170만원	
Fees	Tuition 이외 기타 fee 지출 없음	
보험료	차티스 보험 822불 *본인부담금 0원(10개월)	학교보험이 의무가 아니여서 비싸서 조건 맞추어서 외국보험 사서 갔습니다.
숙소	Activity fee: 550불 Security Deposit: 2100불 (나중에 돌려줌) 1년: 7000불	
식비		보통 외부식당에서 한끼 제대로 먹었다 하면 거의 15불 내외(팁포함, tax포함)로 들어요. 교내식당에서는샌드위치나 중국음식, 샐러드, 초밥등을 파는데 tax호함해서 10불 내외로 합니다.
교통비	여행 이외에는 교통비 지출 안함	
책값	60불 내외	중고책 or rental
기타1		
기타2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출국 전 준비사항으로는 이수정선생님께서 준비하라는 사항: 여권, DS2019 서류준비, 잔고증명서, 비자발급, 항공권 구매 등 선생님께서 하라고 지시하는 대로 순서대로 처리하면 문제없이 준비할 수 있어요. 저는 항공권을 맘 편하라고 왕복으로 구매하였는데 편도로 구매하는걸 추천해 드려요. 저는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였는데 출발공항이 정해져 있어서 학기 끝나고 여행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출발공항을 바꿔야 되서 결국 변경수수료 내고 변경했었습니다. 오픈 티켓으로 항공권을 구매해도 내가 원하는 날짜에 자리가 없으면 날짜를 미뤄야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저는 불편했기 때문에 편도로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교환학생 수학 시점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여행을 하는 경우 미국 이외 국가로 여행하실 경우 (캐나다, 멕시코, 이외 국가) j-1비자 말고 다른 비자가 필요해서 학교 담당자 분과 상담해야 됩니다. 저는 미리 다행히 알아서 ESTA비자를 신청하라고 해서 14불내고 신청했었습니다. 다른 국가 여행 계획 있으시다면 학교비자가 유효할 때 여행하면 비자 때문에 추가로 돈 내는 것도 없으니 겨울방학이나 봄방학에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면허증이 있으시면 국제면허증 발급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면허증이 있었지만 장롱면허라서 미국에서 운전 생각도 안했는데 한국에서 운전 좀 하시는 분이라면 또는 준비기간에 운전연습 하고 오셔서 미국에서 차 렌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 있는 친구를 사귀면 좋지만 매번 부탁하기 곤란할 때도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가고 싶은 날짜에 계획해서 갈 수도 있으니 저는 국제면허증 추천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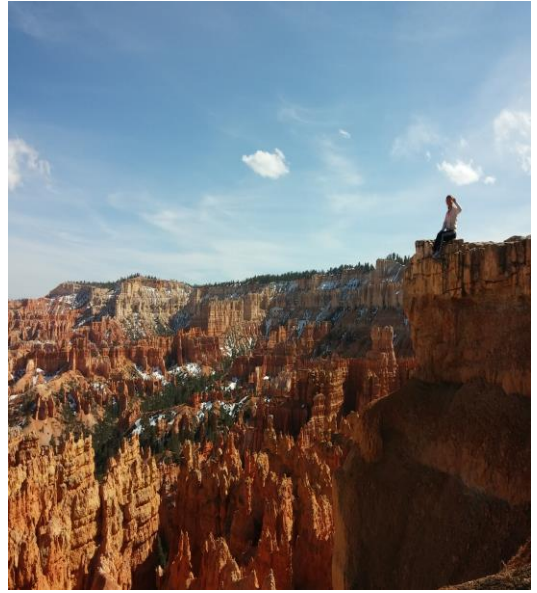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와 생활에 있는 동안 한국을 대표해 온 학생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한국의 인지도가 높은지 알았는데 아직 한국 하면 북한, K-pop, 그리고 삼성이 주요 산맥을 이루더라고요.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면서 저는 제 스스로가 모르는 내용에 대해 후회를 많이 느꼈어요. 한국인으로서 한국을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지 생각해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0개월이라는 파견기간이 짧다면 짧지만 어느 순간 학교생활에 적응이 되다 보면 느슨해지고 지루해지는 순간이 정말 옵니다. 적어도 한번 이상은요. 그럴 때마다 참에 교환학생 온 이유 등을 되새겨 보면서 극복할 방법을 찾으시길 바래요. 저는 적극적으로 학교 이벤트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어색해도 파티 같은데 초대되면 꼭 나갔어요. 미국에서는 학점 욕심내시 마시고 전공 말고도 한국에서 못해본 과목도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동기들과 항상 경쟁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미국은 평가가 절대평가고 분위기도 서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여서 저는 그 덕을 보며 스트레스를 거의 안받고 공부했어요. 교수님께서 학생들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해주시고 OFFICE에 찾아가면 정말 반겨 주셨어요. 후회 없이 공부하고 즐기고 놀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Final dance concert</p>	<p>Halloween 분장하고~</p>
	
<p>캠퍼스에서 가까운 Oceanside beach</p>	<p>Vocal ensemble 마지막 콘서트 후 Rons 교수님과</p>



학교 이벤트로 간 LA STAPLES 농구경기
관람



Spring break때 Bryce canyon 가서